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31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찬간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日,독도교육의무화 관련성명서

일본정부가 2018.3.30. 모든 고등학교에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거짓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학습지도요령”을 공시 했다. 이는 이미 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공시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거짓 독도내용교육 의무화조치로서, 오늘 날 소위 “독도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이대로 동 독도거짓 내용교육을 방치할 경우, 1955년의 알헨티나 교과서 개정: “말비나스 (포크랜드)는 알헨티나 영토인데 영국이 강점하고 있다” 와 그 약 30년 후 곧, 1982년의 포크랜드 전쟁 발생요인의 하나로 알려진 바로 그 교과서 문제가 가져 왔던 전쟁의 씨앗을 한일미래세대 간 심는 격이란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언을 요치 아니 한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란 거짓 교육을 자라나는 일본 세대에 시키고 있는 것은 포츠담선언(8)을 위반하는 것이요, 독도 재 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 (threat) 으로서, 타국의 영토는 “위협이나 무력으로” 탈취할 대상이 아님을 규정한, 유엔총회결의 제2625호 (1970.10.24.)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 결의는 후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저 한다. 또한, 동 일본정부의 독도거짓 내용 교육행태는 일찍이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공식제의 하여 왔을 때 (1954.9.25.), 그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사영토분류를 주술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것이 일본이다” (“It is Japan who conjures up a quasi territorial dispute where none should exist.”, 동년 10.28)를 회상케도 한다. 일본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영토관련 국제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주권독립국가 간에는 상대방국가의 영토 주권 존중의 기반위에서 국가관계가 이루어진다.(J.I. Briery 교수)

이에 우리는 미래 한일세대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일본 초, 중, 고 교과서상 독도 왜곡내용교육행태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일본정부에 촉구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8. 5. 1. 독도사수연합회 일동

후원금 주신 분

세진부동산대표	동래구온천3동대우상가	100,000원
이윤경	효지도사	50,000원
류영자	경남 양산시 평산회야로 51	30,000원
김성표	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	20,000
XXX	(50대여성)가락타운 아지매	10,000원
박소연	부산시동래구명륜동시실로	10,000원
택시손님들		50,000원

‘독도’ 두고 공세 펼치는 일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장]남북 민족 공조를 통해 대응 논리 탄탄하게 구성해야 18.02.23 19:46업데이트 18.02.23 19:46

박명훈(haemil808)



▲ 독도·울릉도 가슴에 품은 남북단일팀 5일 오전 강원 강릉 올림픽선수촌을 나서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외투 위에 울릉도·독도가 새겨진 한 반도기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2월 4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의 평가전이 열린 선학 국제빙상 경기장에서 북측 응원단이 독도가 포함된 단일기를 흔들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말. 스가 관방장관의 항의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남측과 북측을 동시에 겨냥한 일본 정부의 날선 경계로 풀이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 측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상당수 일본 네티즌의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관련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평창은 과거 최악의 올림픽. 정치이용의 장이 됐다” “처음부터 북한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계없는 이야기” “(북측이 독도는 우리민족의 땅이라고 주장한) 이 책임의 반은 남쪽에 있다. 아직 독도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끈질기네” 등 비난일색이다. 국내에선 “독도가 왜 단일기에 들어가지 못했지?”가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개최국인 남측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1991년 치바(千葉) 탁구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의 선례에 따라 단일기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만 넣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평가전에서 남측 응원단의 단일기에 독도는 그려

져 있지 않았다. 독도가 포함된 단일기는 북측 응원단이 따로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림픽을 몹시도 정치이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 일미, 일미한 (3국)이 확실히 연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종료 후 미한합동군사연습도 재개될 거라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해 느슨하지 않게 압력을 가해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측의 독도 대응 살펴보니

이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괴리가 심각하지만 남측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남측은 지난 22일 일본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타케시마(竹島)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일본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그 동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을 뿐, 평창올림픽을 창구삼아 공세를 이어가는 일본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측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월 15일, ‘독도는 신성한 우리의 영토다’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우리는 이미 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번 겨울 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이 리용할 통일기(단일기)에 독도를 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 응원단의 ‘독도 단일기’가 독도가 우리민족의 땅임을 알리기 위한 북측 당국 차원의 대응이었음을 시사한다. 개인논평은 “말로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울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실질 행동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다루는 남북 학술교류도 주목된다. 이를 통해 남측과 북측의 연구 성과를 집약,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면 관계상 이만 카페에서 보시기바랍니다.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844

‘독도 표기’ 이전, 평창 패럴림픽 남북 공동입장 무산

‘독도 표기’ 이전, 평창 패럴림픽 남북 공동입장 무산 : 유병훈 기자 입력 : 2018.03.08 21:04



지난달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KOREA’ 피켓과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들이 공동입장하고 있다. / 조선DB

러림픽위원회(IPC)가 북한 선수 2명의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 출전과 함께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을 승인함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와 같이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표단장

북한이 8일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제외할 수 없다”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예정된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을 무산시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8일 “북한과 협의한 결과, 개회식 때 남북이 공동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저녁 8시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은 개별 입장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월 국제패

를 맡은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남북공동 입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한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이며, 일본이 분단에 책임이 있는 만큼 반드시 독도를 넣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독도 표시가 IPC의 ‘정치적 표현 금지’ 조항에 어긋나고, 공동입장이 시작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사용한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0년 하계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점도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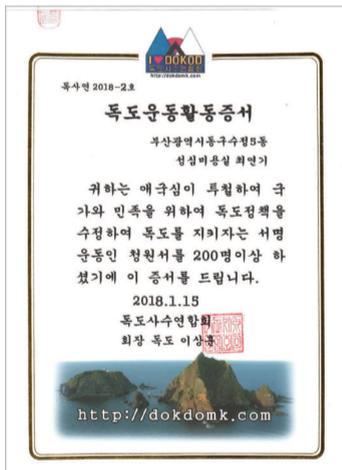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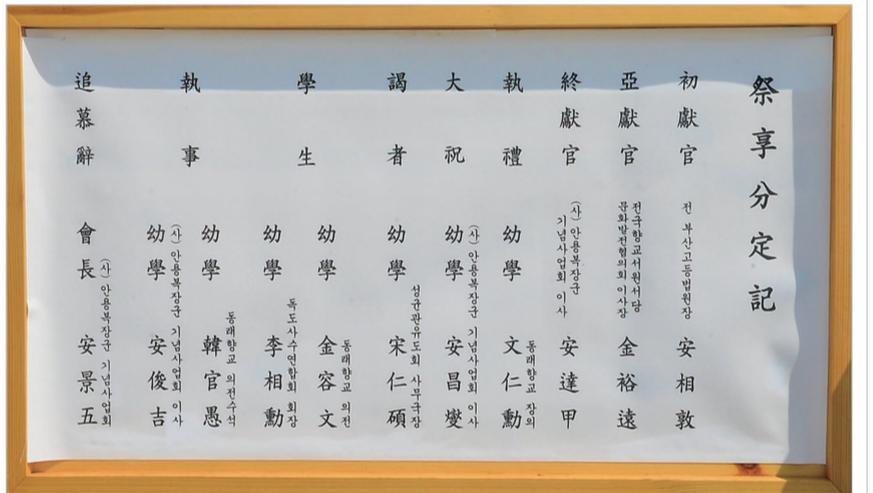
양측은 이후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간격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개별 입장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49개 참가국 중 개최국으로 마지막 입장한다. 북한은 일본에 이어 입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명호 회장의 긴급 제안에 따라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처음 들어서는 성화 봉송 주자로 남북 선수가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독도 우리정부입장은 분쟁지역이 아니다. 과거에 잘못 표시된 한 반도기를 고치지 않으려는 체육회 대표는 독도가 잘못 될 경우에 책임을 지고 자살이라도 할 것인가? 일본의 눈치나 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체육회를 대표자라는 것은 민족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독도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안용복장군 추모제향 제관들 [참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사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수영사적공원 수강사에 안용복 장군 동상
 ↳ 추모제향에 참석한 독도단체장과 시민여러분
 ↳ 금년 수강사 제향 제관 명단



독도지킴이증서받은인 ↑수은천3동센스미용실, ↑수정5동성심미용실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문	고문	고문	고문	자문	자문	홍보대사	회장	부회장	홍보위원장
최정현원장	김영구교수	황성일회장	장현섭유공	곽현욱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여사	문병준교수	임기병교수	가수 서희	독도이상훈	김영희	배우 나기찬
대인지회장	충북지회장	울산지회장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성남지부장	운영위원						
송지영	한명석소장	정종수	한채훈	장태현사장	신한호	박대희	백미경	김석순회장	권정학	김필이여사	김옥희사장	이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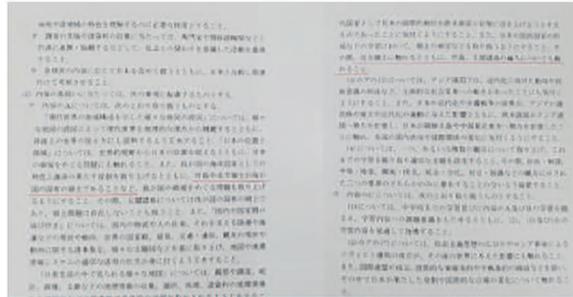
日, '독도=일본땅' 초중고 학습(의무화) 시스템 구축했다

세계일보 조현일 입력 2018.02.14. 18:02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 하는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일본 정부는 초중고에서의 왜곡된 영토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을 지속 하면서 학생들에게 반복 학습을 심화해 왔다.

일본의 영토 도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꼽힌다.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초중고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기 위한 발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귀국 조치하며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2009년에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영토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한일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교과서 도발은 매년 이어졌다. 2010년 3월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술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5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다음해에는 중학교 검정교과서 14종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왜곡 기술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 21종과 15종이 각각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적으로 2012년 12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영토 도발은 더욱 노골화했다. 교과서를 통한 주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시마네(島根)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 22일) 행사에 2013년부터 5년 연속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했다.

2014년에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명시됐고, 같은 해 검정에서 합격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15년 중학교 교과서 15종, 2016년 고교 교과서 27종이었다. 지난해에는 교과서 검정을 통해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을 포함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1월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자료 등으로 채운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 도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공원 내에 설치했다. 조현일 기자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보다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뱅크 "MS사 운영 검색사이트 '빙' 日 주장 담아 독도 소개"

송고시간 | 2018/04/12 14:40 "독도 위치는 일본해...제3국에선 리앙쿠르 록스"라고 왜곡 설명



빙(bing)의 독도 왜곡 관련 내용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개발·운영하는 웹사이트 빙(www.bing.com)이 일본 측 주장을 중심으로 독도를 소개하고 있어 시정을 촉구했다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12일 밝혔다. 빙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Dokdo'를 입력하면 첫 화면 소개 자료에 위치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뜬다. 이는 위키피디아 검색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다. 또 빙이 검색 결과를 요약해 박스 기사 형태로 제공하는 지식 그래프에서 한글로 '독도'를 검색하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면 관계상 이만) 보실분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856 오세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분 이름) 전화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010-6504-6510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은전동부원A) 독도이상훈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